

전주시, 코로나19 방역 완화한다

정부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 '경계' 하향 결정에 일상적 관리체계 대응 집중키로

전주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발맞춰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돋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달라진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활동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하고,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당초 단계별 세부 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등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 만큼,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동시에,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이 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 격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달라진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었던 의원·약국이 전면 권고로 전환됐지만, 고위험 군인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

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신선 전주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전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손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꾸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는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전주시 야호학교, 가족과 함께 자치프로젝트 운영

청소년 · 가족 40명, 청소년 페스티벌서 비즈공예 체험 부스 운영 기획 · 준비

전주시 야호학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과 가족 40명이 함께 '비즈공예' 자치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야호학교'는 전주시 직영으로 2017년 개교하여 중·고등 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스로 여행, 목공 등을 기획하여 실행하여야하는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비즈공예 자치프로젝트는 야호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이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자

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자치회의에서는 지역 행사에 참여해 '비즈공예' 체험 부스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야호학교는 비즈공예 체험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과 그 가족들과 함께 부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

비즈 샘플 만들기와 흥보 문구 만들기 등 체험 부스 운영을 기획하고 준비됐다.

이렇게 준비된 비즈공예 체험 부스

는 오는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선보인다.

이와 관련,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기획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야호학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희망자는 전화 문의 후 전주시 야호학교(덕진구 진바들5길 15-1)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jyu@668@

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야호학교(063-281-6597~8)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외부활동이 제약적이었다"면서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야호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지역 참여 활동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가족과 함께 준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체중은 줄이고, 근력은 늘리고' 함께 운동하며 찾는 건강과 행복

평화보건지소, '명품건강운동교실' 성황리 마무리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평화보건지소는 단체 균력운동 교실인 '2023년 1기 명품건강운동교실'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5일 밝혔다.

평화보건지소에 따르면 운동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은 평균 2~3kg의 체중을 감량했으며, 참여자의 90%가 체지방률이 감소했다. 또, 참여자의 60%는 걷기를 통해 골격근량이 증가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보건지소는 명품건강운동교실 1기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동을 원하는 참여자 중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주민을 건강방법으로 선정하고, 운동지도사의 지도하에 자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명품 건강동아리도 운영할 예정이다.

명품 건강동아리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건강동아

리로, 평화보건지소의 운동기구를 활용해 균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하게 된다.

이번 1기 명품건강교실에서 가장 많은 체지방률 감소를 기록해 1등 상품을 획득한 시민 정모(36)씨는 "살이 빠져서도 좋지만 건강해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명품 건강동아리를 통해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동아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품 건강동아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화보건지소(063-281-663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평화보건지소 단체 균력운동 교실인 '2023년 1기 명품건강운동교실'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전주시 덕진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위해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여야 하며, △실비보상의 경우 만 65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원봉사의 경우 만 64세 이하 전주시민인 경우만 참여 가능하다.

실비보상은 1인 월 20만 원 이내 한도에서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족지형 현수막은 500원, A4 크기가 초

과되는 벽보는 100매당 5,000원, A4 이하는 100매당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명함형 전단은 제외가 되었다.

자원봉사의 경우 일 최대 2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하여 최대 자원봉사 마일리지 240포인트(시간당 12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덕진구는 2019년부터 불법광고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작년까지 약 5천만 이상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경찰관이 공공승마장 운영업체 임원?... 전북경찰청, 감찰착수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완주경찰서는 승마장 운영업체 임원으로 이름을 옮긴 A경위를 상대로 감찰을 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도내 한 자체가 조성한 공공승마장을 위탁 운영하며 3년 간 7억 원 상당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이 업체의 이사로 등록돼 영리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A경위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A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명예퇴직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뉴시스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